

3색(色) 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의 3가지 큰 갈래. 유럽연합은 3색(色) 기술'이 미래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핏빛을 상징하는 '레드 바이오테크놀로지(보건·의료)', 식물을 색깔을 상징하는 '그린 바이오테크놀로지(농업·식량)', 그리고 '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용 바이오)'가 그것이다.

페이지 모델(PAGE Model)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 Model 기후변화와 정책결정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만든 환경경제통합모델.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적응정책의 정도,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등 많은 인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를 시나리오별로 투입하면 기후변화 예상폭이 나오고, 그에 따른 피해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2007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채여라 책임연구원이 펴낸 '환경경제통합 모델(PAGE)을 이용한 기후변화피해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농산물작황감소, 사망률증가 및 한대림의 감소로 인해 199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피해비용은 약 143조원에서 921조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펨토과학(Femtoscience)

10억분의 1m 크기를 다루는 나노 시대 이후를 지칭하는 용어. 펨토과학은 1000조분의 1m 크기와 1000조분의 1초에 해당하는 물질의 근본 분야를 관찰함으로써, 인류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트렁크 쇼(trunk show)

의상이나 보석 등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소수의 상위소비자(VIP)를 위해 개최하는 소규모 패션쇼를 말한다. 판매자들이 제품을 트렁크에 넣어 가져오곤 해서 트렁크 쇼라고 부른다. 초우량 고객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기법이다.

롱테일 현상(long tail)

IT와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시장의 중심이 소수(20%)에서 다수(80%)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말한다. 2004년 미국의 기술지 와이어드(Wired)의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이 처음 창안한 용어이다. 20:80법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파레토 분포에 따르면 시장지배자인 20%의 상품이 80%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롱테일 현상에 따르면 80%의 비주류 상품 혹은 고객의 매출이 20%는 충분히 뛰어넘을 뿐 아니라 시장지배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다. 미국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은 매출의 절반을 비인기 서적에서 올렸다. 기존 파레토 곡선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틈새상품의 매출 부분이 동물의 꼬리처럼 얇고 길게 보이기 때문에 '롱테일 법칙(긴 꼬리)'으로 불린다. 이 현상은 음악, 도서, 영화 등 콘텐츠 시장에서 기존의 소위 블록버스터 히트곡 위주의 시장이 희귀본 마니아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2007 코리아 퀴드러플(대형 국제행사 유치 4관왕)

2007년에 한국이 유치를 희망하는 4대 국제 이벤트를 가리키는 말. 4월 20일 현재 한국은 이 중 절반을 유치한 상태다. 지난달 대구가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고, 인천도 지난 4월 17일 인도 뉴델리를 제치고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확정됐다.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결정되는 2014년 동계올림픽(평창)과 11월 27일 파리에서 결정되는 2012년 국제박람회(여수)도 한국이 유치하면 한국은 올해 결정되는 대형 국제행사를 모조리 석권하게 된다.

이스마일 엑스(Ismail Ax)

직역하면 '이스마일의 도끼'라는 뜻. 지난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32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조승희의 팔에 붉은색 잉크로 이 단어가 쓰여 있었다. 정확한 뜻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말은 '분노의 도끼'를 뜻한다는 게 현재 다수설이다. 이 표현이 구약성서 및 이슬람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견해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따르면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녀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다. 이스마일은 나중에 태어난 동생 이삭을 괴롭히다 쫓겨난다. 그래서 이 이름은 방랑자·추방자·망명자란 의미로도 쓰인다. 무슬림(이슬람교도)은 이스마일을 조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스마일의 도끼'는 '분노의 도끼' '방랑자의 도끼' '신의 처벌'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 조승희가 영문학을 전공해 이러한 문학적 해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임스 페니모어의 소설 '대평원'에 나오는 주인공 이스마일 부시가 가진 파괴와 창조적 힘의 상징이라는 해석도 있다.

앰버 경보(AMBER Alert) 시스템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고속도로와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를 말한다.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살해된 여자 어린이 앰버 해거먼(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따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은 이후 49개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 311명을 구조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은 건설교통부·서울특별시 등과 협의해 실종아동을 공개 수배하는 범정부 차원의 '앰버 경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4월 8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50곳의 도로 전광판과 실종 아동 찾기 홈페이지(www.181.go.kr)에, 서울시는 시내 고속도로 224곳과 서울 메트로·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전광판 3311곳에, 건교부는 전국 고속도로 449곳과 국도 166곳의 도로 전광판에 각각 실종아동 정보를 띄우게 된다.

칸토페어 (Canton Fair)

'칸톤 페어(Canton Fair)'는 중국 광저우시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수출박람회이다.

중국은 195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씩 열린 칸토 페어를 통해 2006년 까지 매년 전체 수출액 가운데 20%가량의 거래계약을 이룬다. 수출박람회인 '칸톤 페어'는 51년째를 맞는 2007년부터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촉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2006년 제100회까지만 해도 '중국 수출상품 교역회'였던 칸토페어가 2007년 4월 15일 열리는 101회부터는 '중국수입·수출상품 교역회'로 변경된다.

블루 레이 (Blu-ray)

“수입을 확대해 무역흑자를 축소한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반영해 외국기업에도 처음으로 전시관 부스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또한 중국인 바이어는 2006년까지 전시관에 입장할 수 없었으나 2007년부터는 전년도 수입 실적 500만 달러 이상인 ‘우수 수입업자’에 한해 중국인 바이어도 전시관에 입장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팔요병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보다 약 10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청자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대용량 차세대 광디스크 규격. 소니가 주도하는 블루 레이 디스크 창립 협회에서 제안하였다. 이 단체에는 국내 LG, 삼성을 비롯해 일본의 하타치, 파이오니아, 샤프, 소니 그리고 네델란드의 로알 필립스, 프랑스의 톰슨 등이 참가하고 있다. 기존 DVD가 650nm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비해 블루 레이 디스크는 좀 더 좁은 405nm 파장의 청자색 레이저 사용하여 한 면에 최대 27GB, 듀얼은 50GB의 데이터를 기록한다. 비디오/오디오 데이터 포맷은 현재 DVD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상 기록 방식인 MPEG-2, 음성 방식인 AC3/MPEG-1 Layer2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도시바 진영의 AOD(Advanced Optical Disc) 포맷, 마쓰시타 주도의 개량형 DVD 등과 함께 HD-DVD 표준 규격으로 채택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이틀로 늘어난 주말은 휴(休)일이기 보다 취미생활이나 교양을 쌓는 여가시간이나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컨드라이프로 채워지고 있다. 정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지만, 생체리듬이 빠르게 뒤바뀌면서 육체적인 피로는 가중되고 있다. 평일 피로에 주말 피로까지 쌓이면서, 월요일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8번째 날, 팔(八)요일로 변하고 있다. 팔요병(八曜病)은 월요일 아침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월요병과는 다르다. 단순히 한 주를 시작하면서 겪는 두통이나 우울증 등의 스트레스 적응 장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월요병에 심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더욱 강도 높은 팔요병을 앓고 있다.

피오나(piona) 주부

애니메이션 ‘슈렉’의 피오나 공주에서 따온 신조어(新造語). 전업 주부이지만 자아(自我) 정체성을 찾기 위한 활동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30~40대 신(新) 주부층을 가리킨다. 영화 속 공주 이름은 ‘Fiona’이지만, 마케팅업계에서는 ‘piona(per sonal identity obtained new auntie · 자아정체성이 확립된 새로운 아줌마)’로 부른다.

호모 서치언(Homo Searchian)

회사 업무, 학교 숙제는 물론이거니와 쇼핑, 맛집 찾기 같은 일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게 일상화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다.